

## '포항 원팀'으로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 정기총회, 성과 공유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유공자 표창으로 지역 이차전지 산업 발전 기여자 격려  
포항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

입력 2024-12-01 19:55:53, 수정 2024-12-01 19:57:54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포스코국제관에서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올 한 해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며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포스코국제관 열린 '포항 이차전지산업 기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기업협의회 회장), 안현준 뉴테크엘아이비 과장, 김지훈 동국산업 차장, 이상혁 리텍 대표, 이은솔 다원화학 대표,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 김재우 비에스원 대표). 포항시 제공

총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이재진 포항시의회 부의장, 김병훈 기업협의회 회장, 장미정 경북도 미래첨단산업과장, 곽진환 선린대 총장, 김형락 포항대 부총장, 장세인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등 산·학·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협의회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이날 총회는 결산 및 감사 보고, 주요 안건 심의와 기업협의회-선린대 간 산학 협력 MOU 체결, 주요 활동 실적 보고,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기업협의회는 2024년 한 해 기업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로 회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차전지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기업협의회 소개책자를 발간해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과를 홍보하고, 인터배터리 2024,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포항시 홍보관에 참여해 회원사들의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산업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했다.

협의회-교육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흥해공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포스텍 배터리 특성화대학원, 한동대 글로벌 대학 선정 등에 기여하는 등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에코프로 이차전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동국산업 니켈도금강판 공장 준공, 포항시-(주)엘케이엔텍 간 이차전지 부품사업 MOU 체결 등 각 기업들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며 지역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노력해 왔다.

포항시는 이날 신기술 개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주)다원화학, (주)비에스원, (주)리텍, (주)피엠그로우, 동국산업(주), (주)뉴테크엘아이비 대표 및 직원 6명에게 유공자 표창패를 수여하며, 회원사들이 지역 산업 발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기업협의회는 2050 전지보국 실현을 위해 포항원팀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지역 내 모든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